

腸  
티  
프  
스  
·  
파  
라  
티  
프  
스



홍      순      국

腸티프스, 라라티프스, 이질, 콜레라 등의 水因性전염병은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원인 및 감염정도에 대하여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으나 이에 따른 예방대책이나 치료는 아직 난제로 남아 있다. 여기에서는 腸티프스와 파라티프스에 대한 것을 주로 언급하기로 하겠다.

腸티프스

腸티프스는 S.typhi라는 균의 감염으로 발생하는 급성 열성질환이며 두통, 무욕상태, 정신쇠약, 脾腫대, 발진, 백혈구감소 등을 수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감염경로 : 자연계에서는 사람이 유일한 S.typhi의 宿主이며 따라서 腸티프스를 현재 앓고 있거나 회복기에 있는 환자, 또는 건강보균자가 궁극적인 감염원이 된다고 하겠다. 이들은 대소변을 통하여 많은 균을 배출하며 이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 우유 등을 섭취하거나 昆虫 특히 파리가 환자의 배설물로부터 균을 운반하므로써 오염된 식품을 섭취한 후에 잘 발생될 뿐 아니라 오염된 물이나 조개 등을 통하여도 감염은 쉽게 성립된다. 현재 심한 腸티프스를 앓고 있는 환자는 기관지분비물, 토물 또는 체액에 균을

## 여름철 전염병과 대책 ● 특집

대보내어 전파를 조장시키기도 한다.腸티프스는 어느 계절에서나 발생하지만 특히 여름에 많아지는 바 더운 여름철에는 세균이 증식하기 적합하므로 자연히 많은 세균을 섭취하게 되는데 소수의 세균은 무방하나 섭취량이 많아지면 설사, 구토를 일으킬 수 있으며, 파리가 많아져 변소에서 오염된 배설물로부터 세균을 옮기게 된다. 한편 장마가 들게 되면 주로 우물에 의존하는 농촌의 경우, 우물은 대개 낮은 곳에 위치하므로 변소가 넘쳐 흘러서 우물로 들어가거나 스며들게 되고, 생식할 기회가 많아져 식기의 감염소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며 더위에 지침으로서 저항력이 감소되어 당연히 발생의 증가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증상: 잠복기는 대개 10일이나 침입균의 수에 따라 3일~60일의 차이를 보인다. 감염 후 첫 5~7일 간에는 계속 상승하는 고열(39°C~40°C)이 있으며 이에 수반하는 식욕부진, 두통, 전신쇠약, 사지통이 나타난다. 췌환자의 2/3에서는 급성기관지염, 비출혈이 있으므로 감기와 혼돈하는 수가 많다. 대부분

의 환자는 복통 또는 복부에 불쾌감 및 변비가 일어나지만 일부에서는 설사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상적인 치료가 없는 한 장출혈, 장천공이 흔히 일어나며 담낭염, 뇌막염, 골수염과 같은 합병증도 일으키기 쉽다.

예방대책: 감염원의 원인에 대하여는 환자가 보균자를 관리하므로서 전염원에 대한 기본문제를 다룰 수 있으며 감염경로의 대책으로서 는 환자를 격리시키고 접촉자를 잠복기 동안 일반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환경위생의 수준을 향상시켜 감염경로의 근원을 모두 차단시켜야 한다. 감수성이 있는 숙주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저항력을 증진시켜야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래식 변소의 개조, 상하수도의 시설완비, 환자 및 보균자의 색출 등은 아직 난제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치료: Chloramphenicol이 제일 먼저 선택되어져야 할 항생제이며 이외 Ampicillin을 사용하기도 한다. 근래에는 Chloramphenicol에 내성을 가지는 균주가 발견되어 항생제의 선택에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

으므로 상기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병원을 찾아 의사의 치료와 지도를 받아야 한다. 특히 발열을 없애기 위한 해열제의 사용은 금하여야 할 것이다.

### 파라티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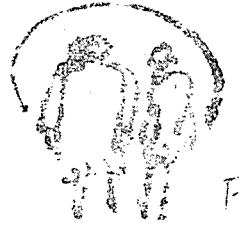
파라티프스는 S.typhi 이외의 살모넬라의 감염에 의하여 일어나며 주로 S.paratyphi A, S.paratyphi B (S.schottmülleri), S.choleraesuis에 의한다. 임상증상은腸티프스와 유사하여 감별이 어려우나腸티프스에 비하여 경과가 짧고 증상이 약하며 사망율도 현저히 낮다.

감염정도에 대한 예방대책 및 진단과 치료는腸티프스에 준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자=고려의대 대과 교수·의박)

마을마다 집집마다  
기생충 검사받자

# 콜레라



## 정 희 영

몇해에 한번씩 찾아 오는 손님인 콜레라는 결코 반가운 손님은 아니다. 인도, 방글라데쉬가 고향인 콜레라는 수천만리의 긴 여행을 마친